

국민 에너지서비스 수준 향상 ... 국가 신산업 생태계 조성

한국전력공사

스마트 에너지 창조자 한전
전기차 확대위해 전국에
공용급속충전기 3000기 구축
나주 혁신도시에 KEPCO형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전력산업은 '에너지 전환' (Decarbonation)과 '디지털 전환' (Digitalization), '사업 전환' (Decentralization), '시스템 전환' (Deregulation) 등 대대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신(新) 기후체제 실행 본격화로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전력망에 4차 산업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그리드의 확대로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 및 소비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IT, 통신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과 글로벌 유틸리티들의 사업모델이 다각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전력망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에너지신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 에너지 Creator(창조자)로 EVC, EMS, 스마트시티, AMI 등의 유망한 에너지신사업 기술 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에너지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가 신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한전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차 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쇼핑물 등 공공장소와 연계한 공용충전소인 도심생활형,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중심 공동주택 충전소 등 다양한 모델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정부의 전기차 동차 35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용 급속충전기 3000기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7월 충전사업 본격 개시로 전기차 사용자 편의향상은 물론, 민간 충전사업자가 한전의 인프라를 활용해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선도하고 있다. 대중교통이용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나주시에 전기버스 충전인프라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전기버스 등 대형 상용차 대상 충전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은 또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K-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EMS)은 2015년 국제스마트그리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은 에너지 통합제어기술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120개 사옥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K-EMS(KEPCO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기, 가스, 열 등 고객의 다양한 에너지 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공장이나 건물 내 설비 운영제어를 통해 효율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빌딩, 공장, 대학교 등에 K-EMS 기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2017년 21개소, 2018년 10월말 기준 22개소를 보급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K-EMS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시장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물론,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전은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과 AMI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스마트 에너지시티는 4차 산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AMI, EVC, xEMS 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정보를 도시정보와 융합해 에너지 통합관리와 도시운영기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안전, 복지, 환경 등 생활편의 증대로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나주 혁신도시에 'KEPCO형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통합운영플랫폼 실증을 추

진하고 있으며, 시흥시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프로젝트에 에너지 분야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플랫폼 기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측정, 한전과 고객과의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선진형 계량시스템인 AMI는 2017년 말 기준 520만호를 설치한 상태다. 2020년까지 2250만호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에너지 신산업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실시간 전력사용량 정보제공, 누진단계 알림 등 국민 편익형 AM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와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핵심 기술력 확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등 에너지신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클라우드(Cloud) 기반 K-EMS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시스템을 구현, 전국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K-EMS 보급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0kW급 초고속충전기, 자율주행 대비 무선충전 시스템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차세대 기술개발로 미래 전기차 확대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국가 스마트시티 확산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분야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국가 표준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전기차 충전소



제주본부 멀티 전기차 충전소



도심형 다중 전기차 충전소 조감도



대구공항 전기차 충전소



경남 창원 빛누리 전기차 충전소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